지식경제부	보도자료	함께하는 공정사회! 더 큰 희망 대한민국 http://www.mke.go.kr
2011년 11월 21일(월)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문의 : 최진혁 소프트웨어융합과장(02-2110-5151), 임성민 사무관(5156)		

한·일 IT국장, 제14차 「한일디지털정책 협의회」 개최

- 전자문서 유통 시범사업, 각국 IT융합정책 상호교류 등 협의 -

□ 한국과 일본의 IT정책을 조율하기 위한 「제 14차 한·일 디지털 정책협의회」가 11.18~19 양일간 일본 동경에서 개최됨

○ 동 협의회에는 유수근 지식경제부 정보통신산업정책국장과 일본의 토미타 켄수케 경제산업성 상무정보정책국 심의관 등 30여명이 참석

□ 한국은 「공생발전형 SW 생태계 구축」, 「전자문서 확산방안」 등을 일본측에 설명하고 협조를 요청

○ 일본은 「융합 신산업 창출」, 「전자상거래 정책현황」 등을 발표

[협의회 주요 논의 안건]

논의 주제	한국측 안건	일본측 안건
① 정책 동향	SW생태계 구축전략소개	융합新산업창출을 위한 실행계획
② 전자상거래	전자문서 확산을 위한 전자거래기본법 개정	최근 전자상거래 추진현황 (유해사이트관리, 분쟁해결 등)
③ 신규이슈	클라우드 컴퓨팅 활성화	재난대응에서의 IT활용
④ 국제협력	전자수출어음(e-Nego) 시스템 국제협력 확대	APEC 물류가시화 연계사업 추진 현황 및 협력분야 소개

□ 관련 부대행사로 『한·일 법률가 라운드테이블』이 17일(목) 개최됨

○ 법무부 주원석 사무관, 성균관대 이해완 교수, 세이와대 요시히다 가즈오 교수 등 양국의 IT 관련 법률전문가들이 참석, 양국의 IT법제에 대한 정보 교환

□ 양국 수석대표는 한일이 IT융합 활성화, 전자문서 유통 촉진 등에 협력하기로 합의하고 특히 아래사항을 중점 추진키로 함

제14차 한·일 디지털정책협의회 합의사항

○ (전자문서) 양국의 기업·개인들이 계약서·졸업증명서 등을 한국의 공인 전자주소를 이용해 주고받는 한·일간 전자문서 유통 시범사업 추진

* 공인전자주소란 본인확인, 송수신 확인, 보안성이 보장되는 새로운 전자주소

- 협의회 참가자들은 주요 문서를 공인전자주소로 한일간에 주고 받을 경우 시간·비용이 급격히 감소할 것으로 기대

* 지식경제부 시범사업 결과 ①계약을 위한 대면방문 평균 7회에서 5회로 감소 ②가족관계 등록부 해외발급 평균 14일에서 2일로 감소

○ (IT융합) 양국은 IT, 자동차, 조선 등 다양한 분야의 융합을 논의하는 포럼을 지원하고, 각국의 포럼결과를 상호 공개키로 합의

□ 양국은 동 합의사항을 추진하기 위해 조속한 시일내에 실무협의를 추진하고, 그 결과를 차기회의('12년, 한국)시 보고키로 함

[참고]

제14차 「한일디지털정책 협의회」 참석자 명단

<韓國 대표단>

구분	이 름	소 속 · 직 책
지경부	**유 수 근**	정보통신산업정책관
	배 성 준	주일한국대사관 상무관보
	임 성 민	소프트웨어융합과 사무관
	안 기 찬	소프트웨어융합과 전문관
전문가	나 연 묵	산업기술평가관리원 차세대 컴퓨팅 PD
	심 상 비	무역협회 전자무역실장
	신 재 식	정보통신산업진흥원 IT융합단장
	이 해 완	성균관대학교 법학과 교수

<日本 대표단>

구분	이 름	소 속 · 직 책
경산성	**토미타 켄스케**	상무정보정책국 심의관
	에토 토시히로	정보국제정책실 과장
	모리야 가쿠	정보정책과 사무관
	가츠오 요시히토	정보정책과 사무관
	이노우에 겐지	정보정책과 주무관
	하라다 에리	정보정책과 주무관
	다케다 미마키	정보경제과 사무관
	요시카와 노리아키	정보경제과 사무관
	나가우치 다이스케	정보경제과 주무관
	타나베 타케유키	정보경제과 사무관
	히라바야시 타카유키	유통·물류정책과 사무관
	하루나 사키	유통·물류정책과 주무관
전문가	요시다 카쥬오	세이와대학교 법학과 교수